

**2021년 1분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BNK금융그룹의 CFO를 맡게 된 정성재 전무입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실적발표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등 시장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1분기 BNK금융그룹의 경영실적에 대해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p) 2021년 1분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2021년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50억원, 39.9% 증가한 1,92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주요 자회사 모두 실적이 개선됐으며, 캐피탈과 증권을 중심으로 비은행부문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61억원 크게 증가하여 비은행 순이익 비중이 32.9%로 높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창출능력 향상으로 그룹의 경상적인 분기 순이익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손익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양행과 캐피탈의 이자수익자산 확대와 순이자마진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이익은 계열사들의 PF수수료 및 증권의 주식매매수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09억원, 59.6%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부문이익은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감소했으나, 증권의 유가증권 관련 이익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부문 부문입니다.

1분기 그룹 판매관리비는 3,4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9억원, 5.8%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 희망퇴직 영향으로 은행의 판매관리비는 감소하였으나,

증권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이 전년동기대비 224억원 증가하여 그룹 판매관리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룹 총당금전입액은 대출 성장에 따른 경상적인 총당금 증가와 코로나총당금 추가 적립 외에,

경남은행 2개 업체 부실 발생에 따른 총당금 211억원이 발생하여 전년동기대비 28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회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은행부문 1분기 순이익은 양행의 이자이익 및 PF수수료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은행은 8.9% 증가하였고, 경남은행은 부실 발생에 따른 총당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등 핵심이익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은 캐피탈과 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461억원, 172.7%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은 대출자산 증가와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마진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4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권은 PF수수료 등 수수료수익 증가와 유가증권 매매 관련 수익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저축은행도 견조한 이익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자산운용 또한 수탁고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자산 운용이익 증가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핵심이익 중심의 이익 성장과 철저한 비용 관리를 통해 그룹 수익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성

은행 1분기 NIM은 부산은행이 1.91%로 전분기대비 4bp, 경남은행이 1.84%로 전분기대비 6bp 상승하였습니다.

양행 핵심예금 증가로 조달비용률이 큰 폭 하락한 반면, 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수익률 하락 제한되어 2분기연속 NIM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어 2분기에도 NIM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1분기 원화대출금은 전년말대비 부산은행이 4.6%, 경남은행이 4.2%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양행 모두 비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산은행이 4.5%, 경남은행이 3.7%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산은행이 4.8%, 경남은행이 5.3% 증가하였습니다.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1분기 그룹 NPL비율은 0.73%로 전분기 대비 3bp 상승하였고, 그룹 연체율은 0.49%로 전분기 대비 1bp 상승했습니다. 양행은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과 기업의 부도/도산 감소로 건전성 지표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연말 대비 캐피탈의 소매대출 NPL 증가로 그룹 NPL비율과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캐피탈의 NPL비율은 0.99%, 연체율은 0.95%로 여전히 업종 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그룹 충당금전입액은 1,121억원으로 지역의 부도/도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경남은행 부실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룹 Credit Cost는 0.49%로 연간 50bp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입니다.

1분기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9.48%이며, 자산성장에 따른 RWA 증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32bp 하락했습니다.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하여 5월 중 감독원의 임점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2분기 중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이 200bp 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2021년 그룹 당기순이익은 6,0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대출 성장과 NIM 개선, 안정적인 대손비용 관리로 은행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비은행계열사의 이익창출 능력 강화로 비은행부문 수익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실적의 개선이 배당 확대 등 주주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금융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